

## “KIA 야구·광주FC 축구 보는 재미에 산다”



KIA 타이거즈와 광주FC가 거침 없는 뜨거운 질주로 시름 많은 지역민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물하고 있다. 8연승을 만든 KIA 양현종(왼쪽부터), 김도영, 나성범, 박찬호와 K리그 '돌풍의 팀' 광주FC의 핵심 엄지성과 허율.  
(KIA 타이거즈·광주FC 제공)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고물가에 지갑은 얇기만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정유성 공원 논란 등 얼굴 찌푸러지는 일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7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한창이던 8월부터 지역민들을 즐겁게 해준 이들이 있다. 그라운드에서 땀 흘리며 혼신을 다하는 광주를 연고로 한 야구와 축구팀이 연전연승으로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FC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지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KIA는 8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광주FC는 9경기 무패의 기록을 쓰고 있다. 연재부터인가 오후 6시부터 TV 앞에서 KIA의 경기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거의 매일 경기 시간이 바뀌는 광주FC의 일정을 체크하는 팬들도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출근 후 티타임 때나 점심 시간대 야구와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회사의 한 풍경이 되고 있다.

KIA는 8연승의 최대 고비로 꼽혔던 지난 3일 SSG를 상대로 한 원정경기에서 8회 짜릿한 역전

우회전 위반 덤프트릭에 환경미화원 비극 ▶6면

굿모닝 예향-맛과 맛 남도유람 '영암' ▶18·19면

프로야구 전망대 - KIA, 두산·LG와 7연전 ▶22면

### 고물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웃을 일 없는 지역민 8연승 KIA 타이거즈·1위 팀 꺾은 광주FC 보며 '환호'

을 연호하며 지역 야구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광주FC는 프로축구계의 '골리앗'으로 불리는 울산 현대를 누르며 축구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3일 오후 2시 SSG를 상대로 원정경기에서 나섰던 KIA는 8-6 승리를 거뒀다. 8연승 질주에 성공한 KIA는 4위로 올라섰고, 3위 SSG를 1.5경기 차로 추격하게 됐다.

황대인과 김도영의 홈런 등 장단 13안타의 시원한 공세로 8연승을 찍은 KIA에는 더 이상 두려운 상대가 없다.

비로 8월 29·30일 NC와의 경기를 쉬었던 KIA는 우려와 달리 뜨거운 타격으로 8월 마지막날을 13-3 대승으로 장식했다. 무엇보다 이날 경기 전까지 1.97의 평균자책점으로 16승을 찍은 'MVP' 후보 페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승리였다.

이날 페디 공략의 선봉장이었던 박찬호가 "공이 너무 좋아서 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대의 기세는 매서웠다. 하지만 '볼넷' 전략으로 수정한 박찬호가 상대를 흔들면서 페디에게 3이닝 7실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안겨줬다.

한 주의 마지막날 승리로 짜릿했다. 이번에는 올 시즌 34이닝을 기록한 SSG 마무리 서진용을 무너트렸다.

선발 이의리가 홈런 두 방에 흔들리는 등 5-6으로 뒤지던 8회, SSG가 서진용을 조기 투입하는 강수를 뒀지만 황대인·김태군이 연속 안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고종욱은 대타로 나와 진정을 상대로 역전 적시타를 날렸다.

서진용에게 시즌 두 번째 볼넷을 안겨주면서 자신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KIA는 5일 잠실에서 두산에 상대로 10년 3개월 만의 9연승에 도전한다.

KIA의 8연승에 환호한 지역 스포츠팬들은 야구가 끝난 뒤에는 광주FC의 한계 없는 질주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광주는 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K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울산의 압도적인 우위가 점쳐진 경기였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은 압도적인 1위 질주를 하면서 리그 2연패를 노리는 강적. 올 시즌 두 번의 대결에서도 광주는 투혼의 승부를 하고도 끝내 울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100%의 전력으로 맞붙어도 쉽지 않은 상대였지만 전력 누수도 있었다. 공격의 핵심 엄지성과 허율이 올림픽대표팀에 소집됐고, 7골로 팀 내 득점 1위인 아사히는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비의 핵 티모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광주는 주축 선수들을 빼고 '호랑이 굴'로 가야 했다.

놀라운 용병술과 전략으로 광주의 돌풍을 이끌어온 이정호 감독에게 K리그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던 경기였다. 광주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2-0의 승리로 9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다. 불점유율과 슈팅에서 울산이 광주를 압도했지만, 광주는 이견희의 선제골과 베카의 K리그 데뷔골로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더 많이 연습하고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다윗' 광주가 차원이 다른 지원과 자원을 앞세운 '골리앗' 울산을 상대로 만든 감동적인 승리였다.

이 승리로 구단의 1부리그 최다승(12승) 기록을 새로 쓴 광주는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까지 노리게 됐다. 두려움을 지운 KIA와 한계가 없다는 광주의 질주가 시름 많은 지역민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회사원 정성필(45)씨는 "오전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전날 KIA팀이 이긴 이야기를 하고, 주말 휴지기 관람을 약속하는 등 재미없는 일상에 야구와 축구가 큰 활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尹, 오늘 아세안·G20 출국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5일부터 5박 7일 순방길에 오른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G20 정상회의의 참석이다.

윤 대통령은 5~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순방 기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만찬 등 다자외교 일정에 연달아 참석한다.

8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8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 10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새벽 귀국한다.

G20을 무대로 기후 변화와 청정에너지 등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의 나렌드리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총 14건(4일 기준)의 소다자회의와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지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내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9월 7일~12월 1일 열린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2024년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다.

광주비엔날레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2024년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 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는 통상적으로 짝수년도 9월에 개최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제13회 비엔날레가 당초 2020년 9월에서 2021년 4월로 순연됐으며, 그 여파로 제14회 비엔날레도 2023년 4월에 개최된 바 있다.

당초 광주비엔날레가 짝수년도 9월에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15회 비엔날레는 원래 개최 일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3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